

질문으로서 문학사, 외국문학으로서 한국문학사

박진영 (성균관대학교)

- 문학사는 왜 쓸모없는가?
- 어떤 문학사를 쓰면 안 되는가?
- 문학사를 왜 읽거나 배워야 하는가?
- 누가 읽기 위한 문학사를 써야 하는가?
- 편협하지 않되 일국적인 통사를 쓸 수 있는가?

문학사는 왜 쓸모없는가?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를 가르치거나 배워야 하는 시대는 진작 끝장났다. 최근 30년 동안, 그러니까 한 세대에 걸쳐 한국문학사 또는 현대문학사라는 것을 쓰지 않았고 읽지 않았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현대문학이라는 것이 더 이상 현대문학이 아니게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과 더불어 문학의 역사를 둘러싼 사유와 실천, 더 나아가 문학 자체의 쓸모가 다했다는 생각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현대문학이 더 이상 현대문학이 아니라는 말은 이른바 근대문학이라 일컬어 온 식민지 시기의 문학이 이미 동시대성을 잃었다는 뜻이다. 1945년을 경계로 현대문학에 자리를 물려주는 근대문학이라는 것의 실체는 사실상 고전문학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고 전근대 시기라 일컫는 고전문학을 낫잡아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세기 전반기 문학과 고전문학 사이에 가로놓인 심대한 격차가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 문학의 이질성에 비하면 오히려 근소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따지고 보면 근대문학이란 고작 40년의 일천한 역사에 지나지 않으나 1945년 이후 현대문학의 역사는 어느새 80년의 쉼을 쌓았다. 엄밀히 말하자면 문학적 동시대성이 유효한 범위는 기껏해야 1990년대 문학부터일 듯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덧붙여야 할 말이 무척 많지만 두세 가지 점만 꼽기로 한다. 먼저 김소월과 한용운을 읊고 이광수와 염상섭을 파고들 이유가 마땅치 않다. 김수영과 신동엽, 최인훈과 김승옥이라 해도 사정은 별다르지 않을 터다. 이토록 오래된 작가를 왜 읽어야 하는가? 그렇게 된 데에는 새로운 세대의 독자와 학생에게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시대가 변하고 문학이 달라졌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토록 어려운 작품에서 과연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6·25나 4·19조차 한참 먼 과거가 아닌가? 하기가야 5·18만 하더라도 50년 가까이 되어 간다. 한 발 더 내딛자면 새로운 세대의 독자와 학생에는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가장 진지하고 열성적인 독자라 할 국내 대학원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 학생이다. 아예 해외에서 한국문학에 관심을 두거나 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있는 현지 학생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어쩌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란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실 모두 외국인이요 모두에게 낯선 외국문학일 따름이니 대체 누가 타자란 말인가?

적어도 1990년대 말까지 어떤 문학 연구나 문학사도 이러한 물음에 답할 필요가 없었다. 문학을 통해 혹은 문학의 역사에 의지하여 동시대를 바라본다든가 자기반성과 전망을

기대하는 일은 구태여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을뿐더러 훨씬 더 절박해졌다. 새로운 독자나 학생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도리어 연구자와 교수에게 더 중요한 물음이 되었다. 나에게 이 작가는 왜 중요하며, 나는 이 작품을 어떻게 읽거나 가르치는가? 나의 삶은 저 오래된 문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강의와 연구 속에서 현재의 반성과 실천의 계기를 찾아내고 있는가? 또 그러한 독서를 타인 혹은 타자에게 권할 만큼 충분히 재미있고 즐거운가? 한마디로 나는 문학을 왜 공부하고 있는가?

어떤 문학사를 쓰면 안 되는가?

문학사를 쓰거나 읽지 않은 지난 30년이 결코 무책임이나 무능력 탓은 아니다. 심지어 문학사를 써서는 안 된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노라고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정전 위주의 직선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문학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학사가 아닌 문학 연구가 더 시급하고 중요했다. 새로운 반성과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색다른 영역, 파격적인 시각과 방법론이 필요했다. 그 지난한 경과야 그렇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현대문학 연구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만하다. 식민지 근대성에서 촉발된 논의는 문학사에서 다루지 않는 대중문학, 여성 문학, 아동 청소년 문학, 그리고 전혀 문학적이지 않은 글쓰기와 서사를 비롯하여 대중문화, 신문과 잡지, 출판과 독서, 제도와 검열, 번역, 동아시아 등으로 뻗어 나가며 한결 풍성해졌다. 그러한 과정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연구를 통해서였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한때 기타 국문학을 연구하는 소수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는 사라졌으며, 어쩌면 학계의 주류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미처 기대하지 못한 효과다.

그 대신 잃은 것이 많고, 더 뼈아픈 대목일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 또 시와 소설의 거리부터 꽤 벌어졌다. 희곡과 연극 분야가 위축되고, 영화는 분리되었으며, 비평사는 거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연구 영역이 세분되고 지나치게 전문성을 띠면서 사실상 파편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연대를 넘나드는 시각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양한 연구 분야를 섭렵하거나 가로지르는 시야를 놓쳤다. 문학 연구의 성과를 문학사에 되돌려주지 않은 덕분인 동시에 문학사로 되돌려주지 못한 탓이다. 지식으로서 문학사만 남거나 그나마 무용해진 것은 당연하다.

사정이 그러하니 이제 와서 어떤 문학사를 써서는 안 되는지 분명하다. 더 이상 정전 위주의 문학사, 단선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사관과 방법론을 되풀이하는 문학사, 작가나 작품론에 치우친 지식으로서 문학사는 무익하다. 내외부적으로 편협하지 않은 문학사라야 하며, 무엇보다 문학의 존재 방식에 관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문학사라야 한다. 그래서 한국문학의 독특한 가치가 무엇이며, 한국에서 문학이 왜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답할 수 있는 문학사라야 한다. 또 과거의 문학이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한국인이 앞으로 어떤 문학을 상상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문학사라야 한다.

문학사를 왜 읽거나 배워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문학 12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야 한다. 낱낱의 지식이 아닌 문학사인 동시에 지난 30년간의 비약적인 성과를 포괄할 수 있는 문학을 상상해야 한다. 문학사는 오래된 문학 작품을 왜 하필 지금 읽어야 하는지 질문하고, 앞으로도 얼마나 중요할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고전문학이나 다름없는

작품을 재미있게 찾아 읽고 즐길 뿐 아니라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동시대 문학, 그리고 오늘날 한국인과 한국 사회, 세계와 세계 시민을 둘러싼 문제의식으로 이어 가야 한다. 과거의 현대문학을 끊임없이 현재화하고 실천적인 관점을 확인해 가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의 문학사에 요청되는 유일한 과제다.

이들테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민중이나 시민이라는 존재가 왜 하필 소설이라는 이야기 양식을 빌려 싹트는지, 한갓 개인의 사랑이나 결혼 따위가 어떻게 민족과 세계를 상상하는 언어가 되는지 묻고 답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인직의 <혈의 누>와 이광수의 <무정>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내면을 응시하고 사회와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왜 자유시여야만 하는지, 시대와 정치를 향한 목소리가 어떻게 서정성을 요청하는지 묻고 답해야 한다. 그러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한용운의 <임의 침묵>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0년 전의 현대는 역사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요 120년 전의 현대문학은 문학사적으로 오늘날과 동일한 문학인 까닭이다. 따라서 문학의 위상과 해방적 사명에 관해, 그리고 한국문학의 독특한 자기 갱신과 민주주의적 상상력에 관해 묻고 답하는 방식이야말로 문학사 본연의 임무다.

고작 한 권의 문학사나 한 학기 강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어쨌거나 오래된 문학 속에서 여전히 다시 읽을 만한 재미와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 예컨대 발표자는 한 학기 내내 마치 고전 강독처럼 <무정>만 읽기도 하고, 초창기 20년의 현대문학 탄생 과정과 문학사적인 변화를 <무정> <혈의 누> <만세전> 순으로 읽기도 한다. 그것만으로 문학이 왜 중요하고 한국문학이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성공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한다. 아쉬운 대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 왔으며, 그것이 오늘날 내 삶의 지향이나 문학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질문하려고 애쓸 따름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문학사는 지식이 아니라 문학 자체에 대한 물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읽기 위한 문학사를 써야 하는가?

이제 문학사를 써야 할 때가 되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축적된 성과를 되돌아보아야 하며,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의 문학에 대한 고민과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문학사란 그런 시점, 이를테면 문학의 존재 의의나 쓸모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위협의 순간이 아니고서는 쓰거나 읽을 필요가 없게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읽기 위한 문학사인지 뚜렷이 정해야 한다. 으레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내국인 고급 독자만 기대할 수는 없는 처지다. 다행스럽게 외국인 학생과 독자가 결정적인 호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한국이나 아시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외국인 학생과 독자는 문학사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현대문학을 재발견하고 객관적으로 상대화하여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독자이자 학생이다. 한국인 전공자나 고급 독자로서는 그러한 문학사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는 것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 국문학이 아니라 외국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일이 더 긴급하다. 독자와 목적을 달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한국문학의 존재 방식과 상상력의 가치에 대한 역사적 시각을 되찾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문학으로서 한국문학사를 읽게 될 학생과 독자 역시 간단하게 보기 어렵다. 얼마 전만 해도 한류 드라마나 영화 덕분에 한국문학을 접하기 시작한 학생과 독자 대신 이제는

K-팝과 웹툰, 혹은 먹방이나 예능 유튜브를 계기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이나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는 학생이라면 최고급의 엘리트 독자일 터다. 미국이나 유럽의 학생과 독자, 아시아 각지의 학생과 독자도 똑같은 외국인 학생과 독자는 아니다. 예컨대 브라질이나 튀르키예의 19세 학생, 중국이나 인도에서 유학 온 23세의 대학원생은 한국문학을 어떻게 읽고 배우는가? 그들에게 <혈의 누>와 <무정>은 왜 중요하며, <진달래꽃>과 <임의 침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동년배의 한국인 학생이나 독자는 똑같은 한국문학을 어떻게 읽고 배워야 할 것인가?

만약 성공적인 문학사라면 한국어로 읽든 외국어로 읽든, 한국인이 배우든 외국인이 배우든 한국문학이란 어떤 것이며, 문학이란 무엇인지 현대 세계의 시민으로서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아시아 변방의 소수 언어로 식민지와 분단의 조건 속에서 늘 현재 진행형으로만 존재하는 문학의 역사야말로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을 존립하게 하고 문학 자체를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며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아닐까? 요컨대 외국어로, 외국인을 위해, 외국문학으로서 한국문학사를 써야 한다.

편협하지 않되 일국적인 통사를 쓸 수 있는가?

문학사는 필연적으로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고, 편협하지 않을 리도 없다. 다만 새로운 해석과 평가를 포용하면서 편협함을 줄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현대문학의 근간인 소설과 시를 중심으로 삼되 오랫동안 교실을 지배해 온 주요 작가와 작품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에 확장하고 심화한 연구 성과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조정되어야만 하는 대목이 많다. 또 다른 하나의 외국문학이 된 북한문학의 역사를 포함하는 데에는 반대한다. 한국어로 되어 있을 따름이지 누구도 읽을 수 없고 전혀 소통되지 않는다면 한국문학사에는 들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우리 시대의 과제가 아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토론해야 할 사항이 숏하게 많으나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기 위한 문학사인지 명료하다면 학계가 무난히 합의하며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한국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현대문학사 서술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현대문학의 출발부터 최근의 문학까지 다루되 외국인 학생과 독자를 위한 문학사를 겨냥하고 있다. 한국에서 문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해서 왜 달라져 왔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종일관 질문하고 설득하는 문학사가 목표다. 집필 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국어로 초고를 마련하되 먼저 영어로 출간할 계획이다. 중국어판과 일본어판도 뒤따를 것이다. 물론 한국어로도 번역되어야 한다. 외국문학으로서 한국문학사라는 실험이 성공적이라면 초고와 조금 다른 한국어판이 가능할 터이며, 전혀 다른 버전으로 보강된 현대문학사가 될 수도 있다. 또 고전 시기를 아우르는 한국문학사 서술로 나아가는 절호의 길목이 되어야 한다.

문학사 서술은 구상과 기획, 집필과 번역, 교육과 연구 전반에 걸쳐 오랜 시간과 품이 드는 데다가 학계가 지혜와 힘을 한데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한국문학의 생명력과 문학에 대한 도전에 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연구자와 교수 자신을 위해 같이 쓰고 함께 가르쳐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앞으로 여러 차례 국내외에 자문을 청하며 쉽 없는 토론을 거치려 한다.